

양궁 전 종목 금메달 석권 '쾌거'

“정의선 회장, 좋은 결과에 가장 큰 도움 준 분”

〈현대차그룹〉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4일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 레장발리드에서 열린 2024 파리올림픽 양궁 남자 개인전 결승을 마치고 대표팀 선수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 /대한양궁협회

대한민국 양궁이 2024 파리 올림픽에서 전 종목 금메달 석권이라는 대기록을 세우며 유종의미를 거뒀다.

양궁 한국 대표팀은 양궁 5개 종목 금메달을 포함해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휩쓸며 대한민국 스포츠 역사의 새로운 역사를 썼다. 2016년 리우대회에서도 전종목을 석권했지만 당시 종목이 4개(남녀단체, 남녀개인)였다. 양궁은 도쿄대회부터 혼성 단체전이 추가돼 5개 종목이 됐고, 한국양궁은 파리대회에서 사상 최초로 5개 종목을 석권했다. 이같은 기록은 선수 개개인과 코치진의 피나는 노력과 함께 대한양궁협회장 겸 아시아양궁연맹 회장인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의 '양궁 사랑'이 자리하고 있다.

◆ 정의선 회장 '시작부터 끝까지' 현장을 이끌어

정 회장은 파리 올림픽을 위해 개막 이전부터 모든 준비 과정을 직접 챙겨 온 것으로 알려졌다. 양궁협회 등에 따르면 정 회장은 지난해 경제사절단으로 동행한 대통령 프랑스 순방길에도 바쁜 일정을 쫓아 파리 현지 상황을 사전에 점검한 것은 물론 개막식 전부터 현지에 미리 도착해 우리 선수들의 전용 훈련장과 휴게공간, 식사, 컨디션 등 준비 상황을 직접 챙겼다.

또 마지막 경기가 끝날 때까지 올림픽 양궁 모든 주요 경기를 관중석에서 지켜보며 양궁협회 관계자, 프랑스 현지 교민들과 선수들을 직접 응원했다.

또 시상식 때마다 선수들 한 명 한 명에게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 회장은 정신적 멘토 역할에도 적극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남자 단체전 결승 상대가 개최국 프랑스로 정해지자 정 회장은 선수들에게 "홈팀이 결승전 상대인데 상대팀 응원이 많은 건 당연하지 않겠냐"며 "주눅 들지 말고 하던 대로만 하자. 우리 선수들 실력이 더 뛰어나니 집중력만 유지하자"며 선수들의 사기를 끌어 올렸다.

경제사절단 일정 중 佛 상황 점검 전용 훈련장 등 준비상황 직접 챙겨 선수들 정신적 멘토 역할도 적극

파리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 건설 현지음향 등 적용해 모의대회 실시 변수 대응 위한 환경적응 훈련 시행

여자 단체전 10연패를 달성한 후 임시현 선수는 "한국 양궁 대표팀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가장 큰 도움을 준 분은 정의선 회장님이다. 정의선 회장님이 많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보다 좋은 환경에서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회장님은 저희한테 진짜 너무 고생 많으셨다고 해주셨고 격려도 많이 받았었다"라며 대한양궁협회장인 정의선 회장에게 고마움을 표현했다.

실제 파리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선수들이 정 회장에게 금메달을 걸어주는 장면도 자주 목격됐다. 임시현, 김제덕, 김우진 선수 등이 여자 단체, 남자 단체, 혼성 단체, 여자 개인, 남자 개인 금메달을 직접 걸어들었다. 앞서 리우올림픽 때는 모든 경기가 끝난 후 선수들이 정 회장을 행개하기도 했다.

◆ 현대차그룹의 맞춤형 지원 눈길

현대차그룹은 1985년부터 40년간 한국 양궁을 전폭적으로 지원했다. 1985년 정몽구 명예회장이 대한양궁협회장에 취임했으며, 2005년부터는 정의선 회장이 양궁인들의 강력한 지지를 받으며 대한양궁협회를 연임하고 있다. 특히 현대차그룹 차원의 맞춤형 지원도 스포츠계에서는 이미 정평 나 있다.

지난 2021년 도쿄 올림픽이 끝난 직후부터 양궁협회와 함께 전방위 맞춤형 지원에 돌입했다. 현대차그룹은 파리 올림픽 양궁경기장인 앵발리드 경기장과 똑같은 시설을 인천선수촌에 건설했고, 예상되는 현지 음향과 방송 환경 등을 적용해 모의대회를 준비했다. 아울러 전북현대모터스와 협의해 전북 전주 월드컵경기장에서 소음 적응 훈련을 진행한 것은 물론 파리의 센강에서 불어오는 강바람이라는 변수에 대응하기 위해 경기 여주시 남한강변에서 환경적응 훈련도 시행하며 주춧돌을 받았다.

이 외에도 전용훈련장과는 별도로 경기장에서 약 300m 거리에 선수단 휴게공간을 마련해 시합과 연습 틈틈이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대회 기간 선

수들이 안정적인 심리상태와 높은 집중력을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 스포츠심리 전문가·정신건강의학 전문의도 동행하도록 했다.

현대차그룹의 자동차 연구개발 역량을 활용한 지원도 빼놓을 수 없다. 현대차그룹은 2012년 런던 올림픽 이후 양궁협회와 기술 지원 방안을 본격적으로 논의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기술을 지원해 왔다.

차 연구개발 역량 활용 기술 지원 경기감각 향상 위한 훈련용 슈팅로봇 3D 프린터로 '맞춤형 그림' 제작

양궁협회와 투명한 운영시스템 코치진 역시 공채로 공정하게 선발 지속적으로 후원 이어나갈 예정

또 현대차그룹은 선수들과 코치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수와 일대일 대결을 펼치며 경기 감각을 향상시키는 '개인 훈련용 슈팅로봇' ▲슈팅 자세를 정밀 분석해 완벽한 자세를 갖출 수 있도록 돕는 '야외 훈련용 다중카메라' ▲어디에서든 활 장비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휴대용 활 점검 장비' ▲직사광선을 반사하고 복사에너지 방출을 극대화하는 신소재를 개발해 적용한 '복사방각 모자'를 도입했다.

또 ▲3D 프린터로 선수의 손에 최적화해 제작한 '선수 맞춤형 그림' ▲비접

촉 방식으로 선수들의 생체정보를 측정해 선수들의 긴장도를 파악하는 '비전 기반 심박수 측정 장치' ▲최상 품질의 화살을 선별하는 '고정밀 슈팅머신' 등을 선수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했다.

한편 현대차그룹과 양궁협회의 투명한 운영시스템도 한국 양궁이 '세계 최강' 자리를 유지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체계적인 지원은 하되,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 선수단 선발이나 협회운영에 일절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지키고 있다. 명성이나 과거 성적보다는 현재의 성적으로만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코치진 역시 공채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선발한다.

현대차그룹은 지난 40년을 넘어 대한양궁협회의 회장으로서 대한양궁협회의 미래 혁신을 지원하고, 대한민국 양궁이 국민에게 사랑받고 글로벌 무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원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 회장은 "선수들이 부담도 컸을 텐데 잘해줬다"며 "앞으로 본인들의 기량을 살려 원하는 것을 꼭 쟁취할 수 있도록 선수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정 회장이 현장에 갈 때마다 한국 선수들이 금메달을 기록해 '승리 요정'이라는 말도 있다. 이에 정 회장은 "선수들이 워낙 잘해서 제가 물어가고 있고, 운이 좋은 것 같다"고 밝혔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삼성전자, 일주일 새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 50% 늘어

무풍에어컨, 지난달 판매 80% 차지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 다양한 기능

폭염이 본격 시작되며 AI(인공지능) 기능을 강화한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이 급증했다.

삼성전자는 지난주 자사 가정용 에어컨 판매량이 전주보다 50% 이상 급증했다고 5일 밝혔다. 전체 판매량도 전년보다 늘었다.

지난달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은 판매량은 전년 대비 약 25%, 일반 무풍 에어컨은 전년 대비 약 10% 이상 판매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무풍에어컨이 강세를 보였다. 지난달 판매된 에어컨 가운데 80%가 무풍에어컨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는 가정용 시스템 에어컨 전체 라인업에 무풍 기능을 탑재했다.

삼성전자의 2024년형 '비스포크 AI 무풍 갤러리'는 전 모델이 에너지소비 효율 1~2등급을 획득했으며, 스마트싱스(SmartThings) AI 절약 모드로 상황별 맞춤 절전이 가능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대 30%까지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빅스비를 적용해 리모컨 없이 음성 명령으로 에어컨의 다양한 기능을 실행할 수 있다.

에어컨을 켜고 끄거나 온도를 조절하는 등 간단한 음성 제어는 에어컨 기기 자체에서 지원돼 와이파이 연결 없이도 이용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실내 움직임 인지에 에어컨을 알아서 작동하는 AI 기능으로 한층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

실내 움직임이 없다고 판단되면 일정 시간 이후 절전 모드로 전환하거나 전원을 끄는 '부재 절전'으로 에너지를 절약하고 에어컨 내부의 습기를 건조시키는 '부재 건조'로 위생을 관리할 수 있다.

/구남영 기자 koogija_tea@

제주항공, 캐릭터 마케팅으로 MZ 공략

'제코' 활용 배경화면 등 제작

제주항공이 MZ세대를 겨냥해 캐릭터 마케팅을 펼치고 있다.

제주항공은 '제코(JEJU+ECO)'를 활용한 배경화면과 여행안전 행운카드 이미지 등 디지털 기획 상품을 제작해 제주항공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웹 등에서 무료로 제공한다고 5일 밝혔다.

'제코'는 제주 연안에서 서식하는 국제 보호종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소재로 제작된 제주항공 자체 캐릭터다. 이번에 제작한 '제코' 디지털 기획 상품은 PC·태블릿·워치 등의 배경화면과



제주항공의 디지털 기획 상품 모습. /제주항공

MZ세대 인기 아이템인 행운카드도 구성돼 있다.

디지털 배경화면에는 인도네시아 발리 등 신규 취항지를 즐기는 제코의 모습이 그려져 있다. /박대성 기자 iunmids@